



남부지방 집중호우 관련 국무총리 긴급지시

- 한덕수 국무총리는 오늘(6.28일) 남부지방을 중심으로 매우 강하고 많은 비가 내리고 피해 확산이 우려됨에 따라 행정안전부, 환경부, 소방청, 경찰청, 산림청 등 관계부처에 다음과 같이 지시했다.
 - 침수 위험지역에 있는 주민들이 즉시 대피할 수 있도록 조치하고, 특히 노약자·장애인 인명피해가 발생하는 일이 없도록 할 것
 - 함평 지역에서 폭우에 휩쓸린 실종자 1명을 수색하는 작업을 포함해, 인명 구조 작업에 총력을 기울일 것
 - 하천, 농로 등 유사한 사고가 예상되는 곳을 중심으로 주민안내와 출입 통제 등 조치를 철저히 취할 것
 - 급경사지 및 산사태 우려 지역, 축대·옹벽 등에 대해서도 점검 및 대피 안내를 강화하여 인명피해가 없도록 최선을 다할 것
- 한 총리는 이날 관계부처 및 지자체 공무원들을 격려하고, 국민들의 소중한 생명과 재산을 지킬 수 있도록 긴장의 끈을 놓지 않고 재해대비에 전력을 다하라고 당부했다.

담당 부서	국무조정실	책임자	과 장	신강민 (044-200-2346)
	안전환경정책관실	담당자	사무관	김민수 (044-200-2348)